

광주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국제실증 선도

정부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 선정...100억 확보 전남대에 심혈관·외과·안과 분야 제품 실증 지원

광주시가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과제인 '바이오인터페이스 인체이식형 생체흡수성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산업부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기술적 한계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인터페이스 기술과 생체흡수성 소재 기술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시장 진출 특화 실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했다. 생체흡수성 소재가 접목된 바이오인터페이스 기술은 인체조직과 의료

기기 사이의 상호작용 기술이다. 생체 적합성 증진기술, 약물전달 기술, 생체 영상 기술, 치료기술 등이 접목된 최신 융복합 기술로 의료용 코팅 기술도 포함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광주시는 전남대학교에 2023년까지 국비 등 총 사업비 176억원을 투입, 노화질환 대응용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특화 전주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 사업은 주관기관인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가 수행하며, 광주테크

노파크, 전남대학교병원,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연세대학교의료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광주시는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시험·평가·인증 지원 ▲의료기기 병행 코드 등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기업 제품 실증 및 인허가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합병원 등에서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치과, 정형외과 특화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던 '치과생체흡수성 중소파트너 지원사업' 기반을 고도화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전 분야 실증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치과·정형외과 분야 외에 심혈관·일반외과·안과 분야 제품 실증을 지원한다. 제품 개발 및 상용화 기술 지원 체계와 국제인증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한 국내 첨단 의료기기 개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 국내 매출 증

가 100억원,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 100만달러 달성, 직접 고용 87명 유발 등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사업 선정을 통해 기존 치과, 정형외과 중심의 광주시 의료산업 실증 기반이 심혈관, 일반외과, 안과 등 제품 실증으로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며 "광주시가 명실상부 국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특화 국제실증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강기자

울촌산단 수산화리튬 공장 착공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포스코리튬솔루션이 조성하는 순천 울촌 제1산단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이 첫 삽을 떴다. 전남도는 13일 "울촌 제1산단에서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5천700여㎡ 규모의 '포스코리튬솔루션 울촌산단 수산화리튬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과 박희석 포스코리튬솔루션(주) 대표 등 포스코그룹 임직원과 고객사,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시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수산화리튬은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 니켈과 함께 배터리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다. 2025년 포스코리튬솔루션 울촌산단 수산화리튬공장 준공과 함께 생산체제를 완성하면 연간 2만5천t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으며 관리·생산직 직원 130명의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화리튬 2만5천t은 전기차 63만대에 공급 가능한 양이다. 수산화리튬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포스코 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일괄 공급망 체제가 더욱 견고하게 될 것으로 보여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리튬을 비롯한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자원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친환경 미래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김건희 여사가 13일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방문,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전시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거듭나길"

김건희 여사, 광주비엔날레 방문 "지역 관광 활성화 힘 모으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 오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현장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광주비엔날레가 지역과 세대를 넘어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하나될 수 있는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시각장애 학생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엄정순 작가의 '코 없는 꼬끼리',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유마 타루 작가의 '천과 같은 혀' 등을 감상하고 행사 관

계자들을 격려했다. 참여형 작품인 이건용 작가의 '바디스케이프' 벽면 드로잉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지난 3월 전시 기획자이기도 한 김 여사를 배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현장에서 만난 강 시장과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에게 "예전에 전시기획자로서 광주에서 '점핑 위드 러브 전(展)'을 개최한 인연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진수기자

이어 김 여사는 "미술관을 포함한 다양한 복합문화 예술공간을 통해 지역 관광과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저도 한국방문의혜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독려했다. 이날 방문은 김 여사가 지난달 한국방문의혜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뒤 두 번째 지역 행보이기도 했다. 지난 9일에는 충남 서천에서 열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에 참석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김 여사가 지역의 문화 행사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별 안들어 추워" 도민행복소통실 이전 논란

도, 예산 9억 들여 청사 1층 40m 앞 이전 추진

전남도가 예산 9억원을 들여 청사 1층에 있는 도민행복소통실 사무실을 40m 가량 떨어진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장은영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행복소통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옮긴다고 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느냐"며 "도민행복소통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많지 않은 데다, 의회동과 가까운 곳으로 사무실을 옮긴다고 의원들과 소통이 강화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현재 사무실에 별이 들지 않아 겨울에 춥다"며 "사무실을 옮기면 민원인·의원들과 소통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이전 이유다. /김재정기자

도는 도민행복소통실을 이전한 뒤 현재 사무실 자리엔 리모델링을 거쳐 북카페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은영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행복소통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옮긴다고 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느냐"며 "도민행복소통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많지 않은 데다, 의회동과 가까운 곳으로 사무실을 옮긴다고 의원들과 소통이 강화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현재 사무실에 별이 들지 않아 겨울에 춥다"며 "사무실을 옮기면 민원인·의원들과 소통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이전 이유다. /김재정기자

정철 도의원 "충분한 논의없는 도서관 휴관일 변경 안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사진)은 2022회계연도 전남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충분한 논의없이 3곳의 전남도 교육청도서관 휴관일을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도서관은 목포와 나주, 장성 등 3곳에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전부개정된 '전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정 의원은 "도서관 휴관일 변경 공

를 올리기 전 해당 자체, 교육지원청, 이용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 시범 운영, 인력 충원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을 것"이라며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으로 휴관일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도서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며 "직접 복지 향상도 중요하지만 직원과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소극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정기자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Global No.1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kps.co.kr